

# 三才와 四象의 결합을 통한 心理에의 운용에 대한 연구

송시원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Study on Operating Psychology through Combining Samjae and Sasang

See Won Song, Jung Soo Kang\*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al, Daejeon University

Sambyun(三變) is standard classification for nine palace. Through sambyun you can define new meaning of 'self' in three perspective ways. First 'self' could mean desire, emotion and memory which are ontological values. second, 'self' could mean id, ego, and superego which are practical values. Third 'self' could mean unconscious, preconscious and conscious which are epistemological values. Samjae(三才) is method that analyze things base on common features. Sa sang is method that analyze things base on difference. They both are device that searching for reason. If you put one's mind in center to observe the universe creativity of great absolute and symmetry distinction of yinyang produces jeung(情), supreme intelligence(神), and soul(魂魄). With these facts identity of the heaven(天), earth(地) and man(人) which is named samjae(三才) generates symbols of independent sasang(四象). And also, sasang generates relations between five element(五行), six energy(六氣). From ten shen(十神) relation comes seven feelings(七情) of man which creates a category of the eight trigrams(八卦) for divination and unification of nine palace(九宮). All these process are united.

Key words : sambyun(三變), heaven(天), earth(地), man(人), samjae(三才), sasang(四象)

### 서론

만물은 小宇宙로, 小宇宙는 精과 神의 반복하는 운동이고 物과 質이 散合하는 모습에 불과하다. 또한 정신과 물질이 서로 매개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여 생성된 것이 존재이고, 이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存在者이다. 存在者으로써 사람이 어디서 나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생명의 生滅문제는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화두로 철학으로 종교로 자리잡아오고 있다.

동양학문은 太極·陰陽·三才·四象·五行·六氣·七情·八卦·九宮·十神이라는 象數理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는데, 분석적으로 각각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인식의 관점인 개별적인 일원론과,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는 관점인 종합적인 다원론이 존재한다.

『東醫寶鑑·集例』에서는 “人身內有五藏六府 外有筋骨 肌肉 血脈 皮膚以成其形 以精 氣 神又爲藏府 百體之主 故道家之三要

釋氏之四大 皆謂此也<sup>1)</sup>”라 하여 人身이 道家의 三要和 佛家의 四大로 구성된다고 하여 三才와 四象을 形體의 主라 하였고, 『天符經』<sup>2)</sup>에서는 “運三四成環五七一妙衍”이라 하여 三才와 四象이 어우러져 運하여 同글게 生하고 五行과 七情이 一太極으로 妙衍하게 成環한다고 하였다. 또한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左右者 陰陽之道路也<sup>3)</sup>”라 하여 左右는 太極에서 動하여 用하게 된 陰陽의 길이 된다고 하였는데, 左右를 분석해 보면 左는 ‘+工’이고 右는 ‘+口’로, 사통팔달의 모습인 十에 工과 口의 차이로써 좌우가 나뉘는데, 工은 天人地 三才를, 口는 사각형의 네 면으로 四象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음양의 진리를 알아가는 길로써 三才와 四象이 左靑龍 右白虎로 보일한다고 볼 수 있다.

『易學啓蒙』에서는 “先天學, 心法也, 故圖皆自中起, 萬化萬事, 生於心也. 又曰, 圖雖無文, 吾終日言而未嘗離乎是. 蓋天地萬物之理, 盡在其中矣<sup>4)</sup>”라 하여 先天의 형성은 사람의 마음이 갖고 있는 법칙이라고 하였다. 先天의으로 사람은 태어나면서 天地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문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omdkjs@dju.ac.kr, · Tel : 042-280-2617  
· 접수 : 2006/08/30 · 수정 : 2006/09/18 · 채택 : 2006/10/09

1) 허준, 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1999, p. 10.  
2) 최의목지음, 도통하는 천부경, 서울, 도서출판 신성, 1997, p. 11.  
3) 程士德, 素問註釋匯粹 上冊,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2, p. 91. “陰之使也”  
4) 주희, 역학계몽, 서울, 예문서원, 1999, p. 141.

인의 人으로써, 四象의 四象人으로, 환경과 심리와 범주를 통해 변화하면서 살아간다. 사람을 天地와 비교해 살펴보면 心身으로 구분하지만, 결국에는 “心 爲一身之主宰”라 하여 心을 중심으로 先天을 살펴봐야 한다.

존재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生에 대한 근본이치는 心에서 오는 것이므로, 인간을 파악하여 임상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心을 태극의 중심으로 놓고 연구해 왔던 性理學과 四象醫學을 현대심리학적 용어로 재해석하고, 이를 三才·四象과 접목하여 醫理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 본 론

### 1. 三才 綜合 三圖論

#### 1) 河圖와 洛書 그리고 象數理

하도와 낙서 모두 물에서 출현하였음에 주의해 보면, 일반적으로 물은 동양철학에서 凝固性·自律性(自動性)·조화성의 특징이 있는 우주의 본체라고 하였고, 실제로 물은 성질이 맑고 투명하며 막힘없이 통하는 靈性이 있다. 따라서 생명의 근본이며 만물의 근원인 물에서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가 나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연이 아니다<sup>5)</sup>.

하도와 낙서는 모두 數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양에서는 數 자체를 진리의 대변자이며 철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周易·繫辭下傳』에서는 “易者는 象也”라 하여, 天地間의 모든 변화는 象으로써 나타난다 하였으니 象이란 우주의 이치가 徵兆와 幾微로써 현상계에 드러워진 것이다. 즉, 象은 理致가 드러난 모습으로, 程伊川은 『易傳·序』에서 이를 “至微者는 理也오, 至著者는 象也”라 하였다. 그러나 象은 無形에서 有形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므로 可否 판단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象의 흐름은 數를 동반하여 흐르므로, 정확한 數의 표현을 통하여 象과 理를 파악할 수 있다. 즉, 數는 象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고 象의 내용을 증명하는 거울이 된다. 이러한 象·數·理의 관계를 程子是 『周易·易說綱領』에서 “有理而後에 有象하고 有象而後에 有數니 易은 因象以知數라”하였고, 張介賓은 『類經圖翼』에서 “數는 非氣不行하고 氣는 非數不立”<sup>6)</sup>이라 하였다. 數의 중요성에 대해 『繫辭上傳』의 五章에서는 “極數知來之謂占”이라 하였고, 十章에서는 “極其數하여 遂定天下之象”이라 하였다. 특히 九章에서는 “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六天七地八天九地十이니 天數五오 地數五니 五位相得하며 二各有合하니 天數二十有五오 地數三十이라 凡天地之數가 五十有五니 此所以成變化하며 而行鬼神也라”하여 1에서 10까지 自然數의 數列의 변화를 통해 天地의 모든 변화원리를 밝혀 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하도와 낙서에 나타난 數象의 가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sup>8)</sup>.

『皇極經世』에서는 “太極不動 性也 發則神 神則數 數則象 象

則器 器之變 復歸於神也”<sup>9)</sup>이라 하여, 數立則象生으로 數는 象의 이전단계이며 변화의 중심치라 하였다. 數는 사물의 機微이자, 有와 無의 변화하는 象이며, 單과 多의 運動現象이다<sup>10)</sup>. 따라서 數를 살피는 것은 太極本性인 理를 알 수 있는 -즉, 本心을 추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太極·陰陽·三才·四象·五行·六氣·七情·八卦·九宮·十神도 결국 數를 통해 理를 살피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三才와 四象을 중심으로 전체를 조명하였다.

### 2) 良知圖의 三圖

#### (1) 良知圖



그림 1. 陰陽圖

『類經圖翼』의 陰陽圖<sup>11)</sup>의 三圖을 외부에서 내부로 각각 1·2·3원이라 할 때, 2·3원은 상하의 중심선으로 좌우를 나누고 黑白을 표시하였다. 2원의 내부 좌측은 흰색, 우측은 검은 색, 3원의 내부 좌측은 검은 색, 우측은 흰색이다. 1원은 장재민의 『태극도론』에 있는 태허도이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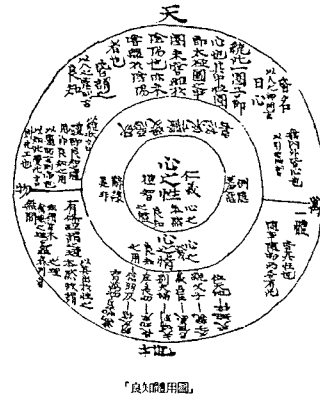


그림 2. 良知體用圖

정제두는 객관 사물에 대한 탐구로서의 격물을 부정하고, 양지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격물을 새롭게 규정하였는데<sup>13)</sup> 이는 良知圖에 잘 나타나 있다. 정제두의 良知圖에는 하도와 낙서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圖書易의 관점에서 三圖圖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性情과 六親을 살펴볼 수 있다.

정제두의 良知圖<sup>14)</sup> 역시 세 동심원으로 구성되었다. 3원은 ‘心の性’이고 2원은 ‘心の情’으로, 심을 성과 정의 영역으로 나누어 이해하였다. 그는 ‘心の本然’과 ‘良知의體’라는 규정을 덧

5) 송일병 외,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997, p. 442.

6) 윤창열, 하도와 낙서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원전외사학과교실, p. 3.

7) 장개빈, 類經圖翼, 서울, 淸苑堂, 1976, p. 16.

8) 윤창열, 하도와 낙서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원전외사학과교실, p. 4.

9) 소강절 / 윤상철 역, 皇極經世(절), 서울, 대유학당, 2002, p. 1660.

10)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 1991, p. 148.

11) 김은하, 國譯 類經圖翼 運氣編, 서울, 일지사, 1992, p. 6.

12) 문재곤, 한의학과 유교문화의 만남, 서울, 예문서원, 1999, p. 156.

13) 한국사상연구회, 圖說로 보는 한국 유학, 서울, 예문서원, 2000, p. 238.

14) 최재복, 동아시아의 양명학, 서울, 예문서원, 2000, p. 116.

불었고, 구체적으로 仁義禮智를 제시하였다. 性과 情을 각각 良知의 體와 用에 대응시킨 점은 朱子學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心·性·情을 良知로 귀결시키는 陽明學의인 표현이다. 그는 사람의 신명으로써 말하면 心이라고 하고, 사람의 양명으로써 말하면 良知라고 하여 心이 곧 良知라 하였다<sup>15)</sup>.

三圖을 河圖에 대응해 보면 3원은 중앙 土의 원, 2원은 生數의 원, 3원은 成數의 원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공자의 '近取諸身, 遠取諸物'의 순서로 배열해 보면, 心統性情이라 하니 3원 중앙 土 皇極에 心을 놓고, 2원 안에 性을 놓아 仁義禮智를 두고, 1원 안에 情을 놓아 喜怒哀樂愛惡慾을 두고, 3원 밖에 天地의 六氣와 六親 및 外物을 상징할 수 있게 된다.

1원의 위쪽은 하늘을, 아래쪽은 땅을 나타낸다. 1원은 우주인 셈이고 그 우주 안에 만물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 전체가 心이라고 규정하여 우주와 마음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 역시 心外無理 心外無物 즉, 모든 것을 마음 안으로 용해시켜 넣는 양명학의 심학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sup>16)</sup>.

이것은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이 존재하며 활동하는 구체적인 場을 표시한 것이다. Fig. 2에서 영역 사이의 원의 존재는 영역의 논리적인 구분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주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의 性과 情은 만물의 가운데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아울러 인간과 만물 사이에는 분명한 영역의 구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간과 만물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만물의 글자 밑에 '一體無間'이라고 밝혀 천지만물과의 유기적인 연대 관계를 나타냈다<sup>17)</sup>.

마음의 작용과 객관 사물이 만나는 장인 맨 바깥의 원에 親父子·義君臣·別夫婦·序長幼·信朋友·位天地·育萬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sup>18)</sup>, 그가 말하는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다섯 덕목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두 가지 덕목은 천지 만물의 五行·六親관계로 움직인다. 전체의 구조는 三圖으로 삼재를 따르고 천지만물의 구조는 四象으로 만들었으므로, 나머지 물류를 河圖三圖에 넣어 운용할 수 있다.

### 3) 정신영역의 三才·四象 분석 및 河圖三圖의 응용

中宮은 魂魄이 나오는 穴로 무의식과 의식의 통로이자 구궁 변화의 主宰地·中心地이므로 각 八宮의 統制者가 된다. 또한 中宮은 항상 염두하면서 살아가는 콤플렉스로 恒心과 연계할 수 있다.

총 81편의 『黃帝內經』은 3變의 수 81을 근거로 三才醫學으로 보고, 『東醫壽世保元』은 四象醫學이므로 이 두 문헌을 중심으로 삼재와 사상의 심리적인 부분을 정리하였다.

恒心을 性과 情 및 콤플렉스로서 『東醫壽世保元·擴充論』에서는 "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學而不欲措 太陰之性氣 恒欲靜而不欲動 少陰之性氣 恒欲處而不欲出<sup>19)</sup>"이라 하여 心之性으로써의 恒心과, "太陽之情氣 恒欲爲雄而不欲爲雌 少陽之情氣 恒欲外勝而不欲內守 太陰之情氣 恒欲內守而不欲外

勝 少陰之情氣 恒欲爲雌而不欲爲雄"이라 하여 心之情으로써의 恒心, "太陰人 恒有怯心, 少陽人 恒有懼心,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太陽人 恒有急迫之心"이라 하여 콤플렉스로서의 恒心을 언급하였다.

體質이 通察되고 中宮이 결정되면 中宮數의 時令에 따른 旺衰, 天地盤의 生剋制化 및 六親의 入中관계와 表病素因者는 心之性을 위주로, 裏病素因者는 心之情을 위주로 恒心을 대입하여 性情을 살필 수 있다.

『靈樞·本神』에서는 "天之在我者德也 地之在我者氣也 德流氣薄而生者也 故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 隨神往來者謂之魂 並精而出入者謂之魄 所以任物者 謂之心 心有所憶謂之意 意之所存 謂之志 因志而存變 謂之思 因思而遠慕 謂之慮 因慮而處物 謂之智"이라 하여 하늘이 있고 땅이 있음에 그 德과 氣라는 因緣을 통해 내가 존재하여 生하게 되어 이로부터 精神魂魄心意志思慮智가 순서대로 因果하게 된다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臟腑論』에서는 "臍海藏神 膜海藏靈 血海藏魂 精海藏魄, 津海藏意 膏海藏慮 油海藏操 液海藏志"라고 四臟 四腑와 各海 및 精神活動을 언급하였다.

## 2. 현대심리학의 마음의 구조·기능 및 존재·인식·실천

### 1) 뇌와 기본적 생명활동

뇌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로 구분하기도 한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능과 식욕·성욕과 같은 기본적인 본능을 지배하는 부분을 '파충류의 뇌'라 하고, 뇌의 변연계 부분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행동은 파충류에게는 발달되지 않은 '포유류 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행동이다. 또한 이 부위는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여 '포유류의 뇌'가 손상되면 파충류와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인간의 뇌' 부위는 다른 동물보다 월등히 발달한 곳으로 사고기능, 창조기능을 담당하는데, 변연계위로 확장 팽대하여 대뇌반구가 된 '인간의 대뇌'로 나누기도 한다<sup>20)</sup>.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를 기준으로 육구·정서·기억의 3법체계로 분석하였다.

#### (1) 欲求

사람의 기본적 欲求是 食物·性·集團에 대한 것으로 이에 따라 행동이 일어난다. 내부 환경의 변화나 嗅覺·皮膚感覺·味覺 등의 자극이 수용되면 시상하부에 있는 각각의 특수 수용세포에 이 정보가 보내지고 그 자극은 고피질에 달하여 욕구를 느끼게 된다. 이 욕구는 다시 운동 자극이 되어 欲求行動(本能行動)이 생긴다. 이와 같은 欲求行動에는 行動을 일으키고 정지시키는 機制와 별도의 해당 부위가 있어, 자동적으로 欲求가 생겨 행동을 개시하고 欲求가 충족되면 欲求가 없어져서 자동적으로 행동이 정지된다.

#### (2) 情緒

欲求가 충족되면 快感을 느끼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不快感을 느끼고, 생명이 위협에 처하게 되면 불안, 공포, 분노가 생긴다. 이들은 모두 古皮質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視床下部에 있는 中樞나 自律神經의 中樞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欲求가 충족되지

15) 한국사상연구회, 圖說로 보는 한국 유학, 서울, 예문서원, 2000, pp. 243-244.

16) 한국사상연구회, 圖說로 보는 한국 유학, 서울, 예문서원, 2000, p. 245.

17) 최재목, 동아시아의 양명학, 서울, 예문서원, 2000, p. 115.

18) 한국사상연구회, 圖說로 보는 한국 유학, 서울, 예문서원, 2000, p. 246.

19) 송일병의,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997, p. 439.

20) 서유현, 바보도 되고 천재도 되는 뇌의 세계, 서울, 중앙교육연구원, 1997, pp. 42-43.

않으면 中樞의 視床下部의 자극은 해체되지 않고 自律神經의 中樞는 흥분되어 노여움의 반응으로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 視床下部의 흥분이 古皮質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 대한 공격 즉, 精神的 反應으로서의 분노 현상은 생기지 않는다<sup>21)</sup>.

(3) 기억<sup>22)</sup>

고피질의 해마구는 신피질의 측두엽과 같이 기억을 일으키는 작용에 관계한다. 해마부분이 파괴되면 특히 새로운 체험의 기억이 방해받게 된다. 신피질은 주로 지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대뇌피질의 각 부분에는 특유의 기능을 맡고 있는 중추가 있다. 前頭葉은 知的·情緒·運動·言語作用을, 두정엽은 體性感覺·行動統制·認識作用을, 측두엽은 聽覺·記憶·言語作用을, 후두엽은 視覺作用을 담당한다.

각각이나 운동과 같은 기본적인 단순한 기능을 하는 국소 이외 부분인 連合領은 비교적 복잡한 기능을 수행한다. 만일 이 運動이나 感覺의 中樞가 손상을 받으면 각각의 運動이나 知覺을 할 수 없게 되고, 連合領이 손상을 받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을 잃게 된다. 예를 들어, 前頭葉의 連合領이 손상을 받으면 運動性 失語症이, 側頭葉의 連合領은 感覺性 失語症을 일으켜서 말의 이해와 발언을 할 수 없다. 頭頂葉의 손상이 있으면 失認症이나 失行症을 일으켜 물건을 보아도 말을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할 수 없고 질서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다.

新皮質의 작용 중에서 前頭葉이 하는 일은 가장 고차적인 것이다. 前頭葉의 前部는 精神機能의 統合作用을 맡아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창조하는 일을 하고, 현재와 미래에 관계된 행동을 하는 역할을 하는 등 具體的 問題보다 高次的인 抽象性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손상을 받으면 抽象的 行動을 할 수 없어 예견이나 계획을 할 수 없다.

大腦皮質에서는 경험한 바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재생하는 기억과 관련된 思考와 學習이 행해지지만, 기억中樞 자체는 新皮質의 側頭葉과 古皮質의 海馬回 部分에 있다. 체험의 흔적으로서의 기억情報와 새로 受容된 知覺情報와의 相互作用에 의해서 學習과 思考가 진행된다.

2) 의식구조

S. Freud는 인간의 精神構造를 意識 (consciousness), 前意識 (pre-consciousness), 無意識 (unconscious)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의식은 나타난 현상에 대한 느낌이며, 개인은 의식에 의해서 현실과 관계를 가지고 현실에 입각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의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내용이 훨씬 적고 신뢰성이 없다. 다만 그것은 직접적인 지각에서 나타나는 理念과 감각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따라서 의식은 자각상태에서의 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정신생활은 의식작용보다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의식은 그 위에 부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의식 속의 것은 기억할 수 있지만 무의식의 것은 기억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각상태에서 의식에 나타나지는 못해도 우리

가 연상에 의하여 의식 속에 꺼내어 올릴 수 있는 심적 내용이 있다. 어릴적 친구들의 모습이나 이름을 평소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회상에 의하여 기억해 내면 의식으로 된다. 이와 같이 쉽게 의식으로 재현되는 것을 前意識이라 하는데, 이 전의식은 단지 일시적인 것으로 의식으로부터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sup>23)</sup>.

3) 성격구조<sup>24)</sup>

성격은 id(他我), ego(自我), superego(超自我)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id는 원초자아라고도 하며 개체가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을 가지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내부세계, 즉 심적 실재이다. ego는 원래 id의 일부로서,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현실과 접촉하는 동안에 id로부터 분리되어 별개의 기능적 실재를 형성한 것이다. 즉, 성숙과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개인이 환경과 교섭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주관하는 실재이다. superego는 사람의 마음의 도덕적 규제 또는 심판자이다. superego는 id와 ego에서 발전한 부분으로 대부분 무의식이며 의식도 포함된다. 이것은 현실적 쾌락보다는 이상 또는 도덕적 선을 추구하는 즉, 자아의 이상이며 良心이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체계가 통일되어 협동하여 작용하면 원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나, 부조화를 이루면 부적응 상태가 되어 만족스러운 정서생활을 할 수 없다.

4) 심리학과 三法구조

(1) 현대심리학의 마음의 구조와 기능

동양철학에는 예로부터 精神의 분석에 2-4-8-16...64로 확장되는 2법 분류체계와, 3-6-9...81로 확장되는 3법 분류체계가 있었다. 一生二法은 陰陽문화·卦문화로 『周易』의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sup>25)</sup>”으로 대표되고, 一生三法은 三才문화, 神·靈·黃帝內經·天符經·奇門과 관계된 문화로 『道德經』의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sup>26)</sup>”로 대표된다. 보다 자연스러운 조화를 위하여 陰陽문화와 三才문화의 통합이 필요하므로, 현대심리학의 성격과 의식구조라는 두 가지 분류체계를 id·superego·ego와 무의식·전의식·의식이라는 3법체계와 결합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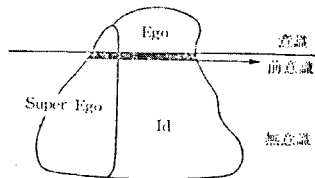


그림 3. 의식과 성격구조

(2) 존재(我), 인식(識), 실천(行)

마음의 구조<sup>27)</sup>와 河圖三圖圖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구궁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분석할 수 있다. 인간 속에는 정신의 분열을 지양하고 통일하게 하는 요소가 내재하는데 이것이 분석심리

21) 김명동·정영운, 심리학개론, 서울, 전영사, 1997, pp. 51-52.  
22) 김명동·정영운, 심리학개론, 서울, 전영사, 1997, pp. 52-54.

23) 김명동·정영운, 심리학개론, 서울, 전영사, 1997, pp. 241-243.  
24) 김명동·정영운, 심리학개론, 서울, 전영사, 1997, pp. 243-246  
25) 金碩鎭, 大산주역강의 3, 서울, 한길사, 2002, p. 147.  
26) 정창영 옮김, 도덕경, 서울, 시공사, 2000, p. 123.  
27) 이부영,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5, p. 59.

학에서 '자기' 또는 '자기 자신', 혹은 본연의 자기라는 것으로, 자아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 무의식적인 것을 깨달음으로써 본연의 자기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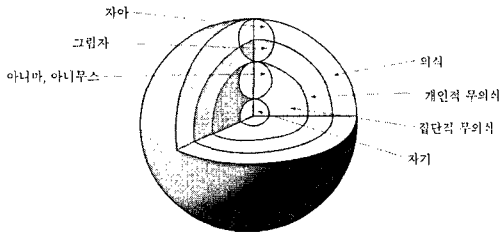


그림 4. 마음의 구조

자기는 중국의 핵심인 존재의 生으로 精神魂魄의 작용을 통하여 본능 본성의 욕구와 관련된다. 여기서 외부로 더 나아가면 무의식이 되니, 무의식은 남김없이 의식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그 깊이를 모르고 그 성질을 알 수 없는 것이 많으므로 완전한 자기실현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용은 자기실현이란 완전성이 아닌 원만성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원만한 무의식의 세계가 정신적 성향을 드러내는 본연의 生數부분이 되고, 의식의 세계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개인적 의식이 되는데, 이곳에 있는 자아는 남들이 나를 볼 때의 사회적 규격이 된다. '자아'가 없는 정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강하든 약하든 '나'는 있고 '나'의 틀레에는 의식이 있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생각, 마음, 느낌, 이념, 과거, 내가 아는 이 세계 등 무엇이든 자아를 통해서 연상되는 정신적 내용은 意識이다. '나'는 이 의식의 중심에 위치한다<sup>28)</sup>.

'나'(자아)는 한편으로는 외계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마음, 내계와 관계를 갖고 거기에 적응해 가는 가운데 인간에게 각종 對 사회적 적응태도나 역할이 주어진다. 이러한 적응 수단은 대부분 어느 집단이 공유하는 수단으로 그 개인에 특유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용은 집단이 개인에게 준 역할, 의무, 약속 그 밖의 여러 행동 양식을 '페르조나(Persona, 面)'라 불렀다. 이것은 외부세계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인 만큼 그 개체의 外的 人格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이 외적 인격에 대응해서 내적 인격이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 그 내적 인격의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남성의 '마음'을 아니마, 여성의 '마음'을 아니무스라 하였다. 이를 동양학에서 태극에서 음양으로 분별했던 것이다. 외적 인격이 자아가 외계와 관계를 맺도록 하는 매개체라면 내적 인격은 자아로 하여금 무의식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은 意識操志의 사유체계를 통해 인식 적응하는 것으로 태극의 動靜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인의 출생 이후의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뜻에서 '개인적 무의식'이 있고, 선천적으로 존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 있어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는 집단적 무의식이 있다. '콤플렉스'란

의식, 무의식 모두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특히 집단적 무의식을 이루는 '콤플렉스'를 象, 또는 원초적 또는 근원적 유형이라고 한다.

의식의 중심으로서의 자아는 나의 정신의 의식된 부분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나의 전체를 통괄하고 자각하려면 무의식적인 것을 하나씩 깨달아 나가는 의식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부딪치는 무의식의 내용은 자아의식의 무의식적인 부분인 '그림자'로, 아직은 어둠 속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자아의 일부분이다. 보통 '그림자' 다음에는 아니마, 아니무스의 의식화가 뒤따른다. 이렇듯 무의식은 의식에 대하여 보상적 관계에 있다. 의식이 무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과 더불어 살 때 인간정신이 전체적으로 실현되고 성숙해진다<sup>29)</sup>. 이는 동양학에서 對衡의 관계와 因果關係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은 뇌가 활동하고 있는 상태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물체가 아니다. 뇌를 과정으로 보면 경험·학습·성장·노화, 사람의 본질은 '변화'이다. 뇌가 컴퓨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외부세계에 반응하면서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sup>30)</sup>. 이 마음의 변화를 인식의 체계 즉 體用變의 變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자아와 행위의 본질을 올바르게 규명해냄으로써 윤회에서 해탈하고자 하는 궁극적 지향점을 갖고 있는데, 존재와 인식과 실천이라는 이 물음에 대해 我(體)와 識(變)과 行(用) 31)의 九宮의 분류기준인 삼법분류로 '나'를 정의해 보면, '나'라는 정의는 기본적 생명활동인 욕구, 정서, 기억이라는 존재론적 가치와, 성격구조인 id, ego, superego라는 실천론적 가치와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라는 인식론적 가치로 분석할 수 있다.

### 3. 三才 四象 五行 및 十神의 體用變

#### 1) 數와 理

三才의 중요성에 대하여 『素問·著至教論』에서는 “道上知天文 下知地理 中知人事 可以長久 以教衆庶 亦不疑殆<sup>32)</sup>”라 하였는데, 이는 “醫道는 반드시 天文·地理·人事의 三才를 결합하여 정체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야 한다<sup>33)</sup>”는 뜻이다. 陰陽과 三才의 관계에 대하여 『周易·繫辭下傳』에서는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 兼三才而兩之 故 六 六者 非他也 三才之道也<sup>34)</sup>”라 하여 통일적인 총체관념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

이에 더 나아가 三才와 四象 및 五行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皇極經世』에서는 “天 體數四而用三 地 體數四而用三 天剋地 地剋天 而剋者在 地 猶晝之餘分在夜也. 是以 天三而地四 天有三辰 地有四行也. 然 地之火 且見且隱 其餘分之謂耶<sup>35)</sup>”, “日月星辰 共爲天 水火土石 共爲地 耳目鼻口 共爲首 髓血骨肉 共爲身 此乃五之數”라 하여 三과 四와 五의 체용관계를 설명하였는데, 三才는 陰陽에 관찰자 혹은 중간자가 더해진 상태로서 관찰자는 관찰자로 머무르지 않고 3개의 동등한 상태가 된다. 四象의 數가 되면 性質

28) 이부영,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5, p. 58.

29) 이부영,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05, pp. 58-61.

30) 박선무·고선운 옮김, 해마, 서울, 은행나무, 2003, p. 324.

31)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아함경,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출판사, 1996, pp. 20-21.

32) 程士德 主編, 素問註釋匯粹,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2, p. 465.

33) 譯解編註 黃帝內經素問 卷5권, 서울, 여강출판사, 1999, p. 161.

34) 金碩鎮, 대산주역강의 3, 서울, 한길사, 1999, pp. 290-291.

35) 소강철 / 윤상철 역, 皇極經世(강), 서울, 대유학당, 2002, p. 1355.

과 位가 정해진 상태가 된 것이다. 웃놀이를 예로 들어보면, 時間과 空間의 天地 속에 사람이 모여, 웃이라는 네 개의 나무 조각을 가지고 도개겉웃모라는 다섯 가지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三才와 四象과 五行을 體用變관계로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三才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식이고, 四象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三才와 四象도 이치를 규명하는 하나의 방편이며, 확대하여 생각해보면 十神이라는 無極의 종합을 통하여 太極과 黃極을 운용해야 한다.

太極과 陰陽과 三才는 존재를 규명하는 體用變으로, 존재로써의 體가 太極이고, 존재로써의 用이 陰陽이며, 존재로써의 變이 三才이다. 四象과 五行과 六氣는 실천을 규명하는 體用變으로, 실천으로써의 體가 四象이고, 실천으로써의 用이 五行이며, 실천으로써의 變이 六氣이다. 七情과 八卦와 九宮은 인식을 규명하는 體用變으로, 인식으로써의 體가 七情이고, 인식으로써의 用이 八卦이며, 인식으로써의 變이 九宮이다. 이를 無極으로 종합하는 것이 十神으로, 太極·陰陽·三才·四象·五行·六氣·七情·八卦·九宮·十神이라는 數의 이치로 象과 理를 살펴볼 수 있다.

2) 十神의 욕구와 性命

四象醫學의 天性·心性·情命·身命을 三才배치법으로 心理學에 응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性命과 의식 및 성격구조

id	天性	무의식
superego	心性	전의식
	情命	
ego	身命	의식

(1) 1단계 : 무의식층의 id로써 本性적인 욕구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서는 “學知而論性 可也而舉行而論命<sup>36)</sup>”이라 하였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性이라 하여 天性(本性)이라 하고, 자신의 타고난 성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命이라 한다. 천성이 있어 사람의 마음에 자신을 위주로 생각하는 마음과 이를 책망하여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를 심성(心性)이라 한다. 무의식의 本性은 天性和 이를 存其心養其性하는 心性을 아울러 참고하여야 한다. 本性은 세상을 인식해 가는 무의식적 과정으로 知에 해당한다.

(2) 2단계 : 잠재의식적 욕구인 정신적 성향

잠재되어 있는 의식으로 自覺하지 않지만 그때그때 의식화되어 작용하는 前意識을 통하여 ego와 콤플렉스 등이 정신적·심적으로 드러난다.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 固無可論 天稟已定之外 又有短長而 不全其天稟者則人事之修不修而命之傾也 不可不慎也<sup>37)</sup>”라 하여 타고난 것 외에 人事를 통해 닦고 닦지 않은 것에 따라 天命이 기울어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2단계의 욕구는 情命의 극복과 화습을 통해 장점과 단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存其心養其性の 心性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能不能의 장단점에 대하여 『東醫壽世保

元·性命論』에 “耳目鼻口 人皆知也, 頷臆臍腹 人皆愚也, 肺脾肝腎 人皆賢也, 頭肩腰腎 人皆不肖也<sup>38)</sup>”라 하여, 能한 장점 중 天性에 해당하는 것을 知, 人事의 情命에 해당하는 것을 賢, 不能한 단점 중 存其心養其性の 心性에 해당하는 것을 愚, 修其身立其命의 身命에 해당하는 것을 不肖라 하였다. 각 체질별로 장단의 能不能에 대하여는 『東醫壽世保元·擴充論』의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而 太陽之鼻 不能廣博於人倫 少陽之目 能廣博於世會而 少陽之口 不能廣博於地方 太陰之鼻 能廣博於人倫而 太陰之耳 不能廣博於天時 少陰之口 能廣博於地方而 少陰之目 不能廣博於世會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而 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而 少陽之腎 不能恒定於居處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而 太陰之肺 不能敏達於事務 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而 少陰之脾 不能勇統於交遇<sup>39)</sup>”를 보아 판단할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臟腑論』에서는 “臍海藏神 膜海藏靈 血海藏魂 精海藏魄, 津海藏意 膏海藏慮 油海藏操 液海藏志<sup>40)</sup>”라 하여, 意慮操志가 心性, 神靈魂魄이 情命으로 인식과 행동의 기본적인 잠재의식이 된다고 하여 意慮操志와 神靈魂魄을 구분하였다.

『東醫壽世保元·擴充論』에서 心性의 不能한 愚를 邪心을 없애 극복하면 免愚하여 뛰어난(=絶世) 재능을 지니게 되고, 身命의 不能한 不肖를 怠心을 없애 극복하면 免不肖하여 뛰어난(=大人) 재능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sup>41)</sup>.

(3) 3단계 : 의식화된 욕구인 사회적 성향

四柱에서 月支와 日干사이의 格局처럼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면서 행동을 할 때 잘 드러난다. 『東醫壽世保元·性命論』의 “而舉行而論命”을 다시 인용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성은 행동으로 잘 드러나니, 命 즉, 情命과 身命에 관련된 의식이다. 行으로 命을 말하니 이는 실천하는 사회적 인간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2단계와 3단계에서는 情을 중심으로 六음을 형성하여 人事와 行其知 行其行的 변화에 각각의 十神의 특성이 드러난다. 이는 “人事之修不修에 따라 命에 기울어짐<sup>42)</sup>”이 있으므로 性向보다는 傾向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3) 東醫壽世保元의 心的 用語 재해석

(1) 天性

天性은 id의 범주에서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관념으로 인식<sup>43)</sup>하는, 아직 판단이나 행동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선한 본성<sup>44)</sup>으로, 누구나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다. 타고난 체질의 특성에 따라 4가지로 선택되는 큰 공통적<sup>45)</sup> 특성이자 본능

38) 송일병 외, 前掲書, p. 435.

39) 송일병 외, 前掲書, p. 438.

40) 송일병 외, 前掲書, p. 441.

41) 송일병 외, 前掲書, p. 440.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絶世之行檢 必在此也 少陽之腹 宜戒奪心 少陽之腹 若無奪心 絶世之度量 必在此也 太陰之頷 宜戒驕心 太陰之頷 若無驕心 絶世之籌策 必在此也 少陰之臆 宜戒矜心 少陰之臆 若無矜心 絶世之經綸 必在此也. 太陽之腎 宜戒竊心 太陽之腎 若無竊心 大人之方略 必在此也 少陽之腰 宜戒傾心 少陽之腰 若無傾心 大人之材幹 必在此也 太陰之肩 宜戒侈心 太陰之肩 若無侈心 大人之威儀 必在此也 少陰之頭 宜戒奪心 少陰之頭 若無奪心 大人之識見 必在此也”

42) 송일병 외, 前掲書, p. 438. “天稟已定之外 又有短長而 不全其天稟者 則人事之修不修而命之傾也이니 不可不慎也”

43) 송일병 외, 前掲書, p. 435. “耳目鼻口 人皆知也”, “人之耳目鼻口 天也 天知也”

44) 송일병 외, 前掲書, p. 435. “人之耳目鼻口 好善無雙也”

36) 송일병 외, 사상과학, 서울, 집문당, 1997, p. 436.

37) 송일병 외, 前掲書, p. 438.

적 욕구이다.

① 天時 : 참된 일들이 때에 맞추어 곳곳에 흩어져 있는 태양인의 지혜로운 천성의 능력이며 기틀이다.

② 世會 : 道理를 깨달아 안 마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소양인의 예의바른 천성의 능력이며 기틀이다.

③ 人倫 : 能히 關係를 맺은 身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태음인의 의로운 능력이며 기틀이다.

④ 地方 : 本質을 간직한 物들이 나뉘어서 머물러 있는 소음인의 어진 능력이며 기틀이다.

(2) 心性

心性은 무의식을 통해 天性으로 인식한 세상을 나의 초자아(superego)가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생각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전의식으로, 이성적인 상태가 되는 지적인 흡수작용이다. 자기분위로 생각하고 관심이 邪된 것에 집중되어 본성이 가려져 어리석어질 수 도 있고<sup>45)</sup>, 스스로 반성하고 채찍질하여<sup>47)</sup> 타고난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도 있다<sup>48)</sup>.

① 籌策 : 太陰人の 지혜로운 마음가짐으로 身의 關係맺음을 셈하여 나온, 事의 참됨에 대하여 꾀할 수 있는 知慧를 말한다.

② 經綸 : 少陰人の 예의바른 마음가짐으로 物의 本質에서 실마리를 찾아서 나온, 心의 道理에 대하여 類別하여 합칠 수 있는 知慧를 말한다.

③ 行檢 : 太陽人の 의로운 마음가짐으로 事의 참됨을 행하여 나온, 身의 關係맺음에 대하여 본(模型)할 수 있는 知慧를 말한다.

④ 度量 : 少陽人の 어진 마음가짐으로 마음의 道理에 맞게 하여 나온, 物의 本質에 대하여 헤아릴 수 있는 知慧를 말한다.

(3) 情命

情命은 전의식에서 의식화되어 자신의 삶을 克復하고<sup>49)</sup> 재구성하며 조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삶의 양태로, 事心身物에 독립된 존재<sup>50)</sup>로 흥미를 지니고 人間事에 가치를 구현하는 감성이다.

① 事務(=肺能敏達於事務) : 世上사람들이 서로 속이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少陽人の 지혜로운 能力으로 心을 事하여 務事하는 (마음을 섬겨서 일에 힘쓰는) 처세술이다. 따라서 소양인은 자아를 자기와 동일시하여 찾는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懼心이 생기고, 薄人이 될 수 있다.

② 交遇(=脾能勇統於交遇) : 世上사람들이 서로 업신여기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太陽人の 예의바른 能力으로 事를 交하여 遇心하는 (일을 통해 마음을 만나가는) 처세술이다. 따라서 태양인은 자아와 자기의 관심보다 事를 통해 命을 중시하게 된다. 여기서 急迫之心이 생기고, 鄙人이 될 수 있다.

③ 黨與(=肝能雅立於黨與) : 世上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少陰人の 의로운 能力으로 物에 黨하여 與身하는 (환경에 무리지어 몸을 더부는) 처세술이다. 따라서 소음인은 자아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 하고 不安定之心이 생기고, 懦人이 될 수 있다.

④ 居處(=腎能恒定於居處) : 世上사람들이 서로 保護해주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太陰人の 어진 能力으로 身에 居하여 處物하는 (몸을 두어 환경에 처하는) 처세술이다. 따라서 태음인은 자아를 자기 밖에서 찾으려 하고 怯心이 생기고, 貪人이 될 수 있다.

(4) 身命

身命은 항상 의식하여 행동하는 ego의 욕망으로 실천을 의미한다. 끊임없이 실행해야 하는데<sup>51)</sup> 이만하면 됐지 하는 게으른 마음<sup>52)</sup>이 생겨 천한 사람<sup>53)</sup>이 되지만, 스스로 끊임없이 경계하고 실천하면 삶의 목표와 길<sup>54)</sup>을 이루어 수명 또한 아름답게 된다<sup>55)</sup>.

① 識見 : 學識과 見聞의 줄임말로 모든 物의 本質을 어질게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事의 根源의인 참됨을 삼가 두터이 함에 남을 속이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살아 나갈 수 있는 少陰人の 지혜로운 實踐能力이다.

② 威儀 : 禮儀에 맞고 威嚴있는 學動의 줄임말로 世上에 있는 모든 身이 能히 關係맺음을 믿음성 있는 바탕이 있게 하기 위하여 世上에 있는 모든 心이 各其 나름대로의 道理를 깨달아 앎을 부지런하고 儉素하게 함에 남을 업신여기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살아 나갈 수 있는 太陰人の 예의바른 實踐能力이다.

③ 材幹 : 재주와 幹能의 줄임말로 世上에 있는 모든 心이 各其 나름대로의 道理를 깨달아 앎을 부지런하고 儉素하게 하기 위하여 世上에 있는 모든 身이 能히 關係맺음을 믿음성 있는 바탕이 있게 함에 남을 도와주면서 올바르게 살아 나갈 수 있는 少陽人の 의로운 實踐能力이다.

④ 方略 : 方法과 策略의 줄임말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事의 根源의인 참됨을 삼가 두터이 하기 위하여 모든 物의 本質을 어질게 사랑하게 함에 남을 保護해주면서 올바르게 살아 나갈 수 있는 太陽人の 어진 實踐能力이다.

4) 體用變으로 분석한 『東醫壽世保元』의 用語

天機有四의 天機를 體로 삼고, 人事有四의 人事를 用으로 삼으면, 天性이 體가 되고, 情命이 用이 되어 天性의 極과 情命의 克이 작용하여 변화가 되는데, 情을 克復하여 性力에 이르도록 行其知하면 心性에 博通의 知가 생기고 情을 다스려 行其行하면 身命에 獨行의 行이 생하여 여기에 邪心과 怠心의 변화가 있게 되니, 心性和 身命을 體用變의 變으로 삼는다. 이상의 體用變을 존재 실천 인식의 차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5) 송일병 외, 前揭書, p. 434. “天時極蕩 世會極大 人倫極廣 地方極遠”, “大同者 天也”  
 46) 송일병 외, 前揭書, p. 435. “人之能聽脾腹 邪心無雙也”, “能聽脾腹 人皆愚也”  
 47) 송일병 외, 前揭書, p. 436. “存其心者 賈其心也”  
 48) 송일병 외, 前揭書, p. 440.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絕世之行檢 必在此也 少陽之腹 宜戒奪心 少陽之腹 若無奪心 絕世之度量 必在此也 太陰之頤 宜戒驕心 太陰之頤 若無驕心 絕世之籌策 必在此也 少陰之臍 宜戒矜心 少陰之臍 若無矜心 絕世之經綸 必在此也”  
 49) 송일병 외, 前揭書, p. 434. “事務克修也 交遇克成也 黨與克整也 居處克治也”  
 50) 송일병 외, 前揭書, p. 434. “各立者 人也”

51) 송일병 외, 前揭書, p. 434. “識見獨行也 威儀獨行也 材幹獨行也 方略獨行也”  
 52) 송일병 외, 前揭書, p. 435. “人之頭肩腰腎 怠心無雙也”  
 53) 송일병 외, 前揭書, p. 436. “棄禮而放縱者 名曰 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 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 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 貪人”  
 54) 송일병 외, 前揭書, p. 435. “天生萬民 命以資業 萬民之生也 有資業則生 無資業則死 資業者 道之所由生也”  
 55) 송일병 외, 前揭書, p. 436. “善行則命數 自美也 惡行則命數 自惡也”

표 2. 體用變으로 분석한 東醫壽世保元의 用語

四端	體 (존재)		用 (실천)		變 (인식)	
	天性	情命	心性	身命		
智	天時	事務	籌策 / 驕心	誠見 / 寡心		
禮	世會	交遇	經綸 / 矜心	威儀 / 侈心		
義	人倫	黨與	行檢 / 伐心	才幹 / 懶心		
仁	地方	居處	度量 / 夸心	方略 / 驕心		

少陰人은 地方이라는 존재로 黨與를 실천하여 經綸과 誠見에 變化가 인식되고, 태음인은 人倫이라는 존재로 居處를 실천하여 籌策과 威儀에 變化가 인식되며, 少陽人은 世會라는 존재로 事務를 실천하여 度量과 才幹에 變化가 인식되고, 太陽人은 天時라는 존재로 交遇를 실천하여 行檢과 方略에 變化가 인식된다.

(1) 性과 性氣

天性은 未發이니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好善이 無雙한 것이다<sup>56)</sup>. 陽人의 性은 부정적 개념에 대한 哀怒의 性이고, 陰人의 性은 긍정적 개념에 대한 喜樂의 性이다. 이에 體用變의 體를 대입하여 논하면 다음과 같다.

太陽人의 哀性은 天時를 들음에 세상 사람들이 서로 속임을 애처롭게 여기는 것으로, “哀性遠散則 氣注肺而 肺益盛”하여 肺大해지지만, 실제로 哀性은 四端의 智를 통해 추측할 뿐이지 그 대로 알기는 어렵다. 추측하기에 太陽人의 氣가 있다는 것이 바로 太陽性氣로 太陽人의 性氣는 “抗欲進而 不欲退”라고 하였다.

少陽人의 怒性은 世會를 봄에 세상 사람들이 서로 업신여김을 노엽게 여기는 것으로, “怒性宏抱則 氣注脾而 脾益盛”하여 脾大해지지만, 실제로 怒性은 四端의 禮를 통해 추측할 뿐이지 그 대로 알기는 어렵다. 추측하기에 少陽人의 氣가 있다는 것이 바로 少陽性氣로 少陽人의 性氣는 “抗欲舉而 不欲措”라고 하였다.

太陰人의 喜性은 人倫을 낚새 맡음에 세상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기쁘게 여기는 것으로, “喜性廣張則 氣注肝而 肝益盛”하여 肝大해지지만 실제로 喜性은 四端의 義를 통해 추측할 뿐이지 그 대로 알기는 어렵다. 추측하기에 太陰人의 氣가 있다는 것이 바로 太陰性氣로 太陰人의 性氣는 “抗欲靜而 不欲動”이라고 하였다.

少陰人의 樂性은 地方을 맛봄에 세상 사람들이 서로 보호해 줌을 즐겁게 여기는 것으로, “樂性深確則 氣注腎而 腎益盛”하여 腎大해지지만 실제로 樂性은 四端의 仁을 통해 추측할 뿐이지 그 대로 알기는 어렵다. 추측하기에 少陰人의 氣가 있다는 것이 바로 少陰性氣로 少陰人의 性氣는 “抗欲處而 不欲出”이라고 하였다<sup>57)</sup>.

(2) 情과 情氣

情은 已發의 상태로 오악(惡惡)이 無雙한 것이다<sup>58)</sup>. 克復하여 性의 수준으로 이끄는 힘을 性力이라 하는데, 情을 극복하는 법 즉 逆法에서는 存其心 養其性의 心性이 사용되고, 情을 이용하는 법 즉 順法에서는 修其身 立其命의 身命이 사용된다. 七情

의 愛惡慾 증 愛는 好善(好賢樂善)과 연관되는 情이지만 性에 다를 수 있는 행복의 씨앗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東醫壽世保元』에서 이를 性力이라 하였다. 惡는 惡惡(妬賢嫉能)과 연관되어 情促急으로 진행되어 불행의 씨앗이 된다. 이에 體用變의 用과 變을 대입하여 논하면 다음과 같다.

太陽人의 怒情은 交遇를 행함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김을 노여워하는 것으로, “怒情促急則 氣激肝而 肝益削”하여 肝小해진다. 心身에 知行으로 克復 및 順應하면 발전하지만, 邪心과 怠行에 의해 鄙人이 될 수 있다.

少陽人의 哀情은 事務를 처리함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속임을 슬퍼하는 것으로, “哀情促急則 氣激腎而 腎益削”하여 腎小해진다. 心身에 知行으로 克復 및 順應하면 발전하지만, 邪心과 怠行에 의해 薄人이 될 수 있다.

太陰人의 樂情은 居處를 다스림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을 보호해 줌을 것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樂情促急則 氣激肺而 肺益削”하여 肺小해진다. 心身에 知行으로 克復 및 順應하면 발전하지만, 邪心과 怠行에 의해 貪人이 될 수 있다.

少陰人의 喜情은 黨與를 행함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을 도움을 기뻐하는 것으로, “喜情促急則 氣激脾而 脾益削”하여 脾小해진다. 心身에 知行으로 克復 및 順應하면 발전하지만, 邪心과 怠行에 의해 懦人이 될 수 있다<sup>59)</sup>.

이러한 情氣가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다르게 표현되니, 太陽人의 情氣는 “抗欲爲雄而 不欲爲雌”, 少陽人의 情氣는 “抗欲外勝而 不欲內守”, 太陰人의 情氣는 “抗欲內守而 不欲外勝”, 少陰人의 情氣는 “抗欲爲雌而 不欲爲雄”이라 하였다.

(3) 性命

性情을 중심으로 情을 六合(上下左右前後)으로 표현할 수 있다(그림 5). 情氣의 중심에는 人趨心慾이라 하여 七情 중 慾을 배치하고 四邊에 哀怒喜樂을 배치하였다. 愛를 통해서 情이 性氣 쪽으로 이동하고, 惡을 통해서 情이 情氣쪽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性情의 변화에 의해 六合의 공간이 이그러져서 四象人이 나온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九宮·八卦·七情·六氣·五行이 배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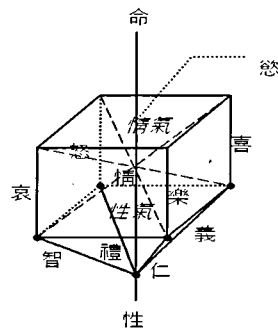


그림 5. 성명론의 입체도

결론

九宮의 분류기준인 三變에 三變을 통해 ‘나’를 정의해 보면,

59) 申弘一, 前掲書, pp. 116-117.

56) 선한 것(天機)을 좋아하기에 이목비구에 의해 집착되어 세상을 관념으로 인식하는 아직 판단이나 행동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선한 본성으로, 누구나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데, 타고나는 체질의 특성에 따라 4가지로 선택되는 지극히 큰 공통적 특성이며 본능적 욕구이다.

57) 申弘一, 동의수세보원주해 상,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p. 116-117.

58) 나쁜 일(人事)을 싫어하기에 일어나는 감정으로, 情命은 자신의 삶을 克復하고 재구성하며 조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삶의 양태이다. 事心身物에 독립된 존재로서 흥미를 지니고 人間事에 가치를 구현하는 감성이다.



'나'라는 정의는 기본적 생명활동인 욕구, 정서, 기억이라는 존재론적 가치와, 성격구조인 id, ego, superego라는 실천론적 가치와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라는 인식론적 가치로 분석할 수 있다.

三才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식이고, 四象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三才와 四象도 이치를 규명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心을 위주로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 本然之心인 太極이라는 本體의 創造性和 陰陽이라는 對稱的 差別性을 근간으로 生하여 精神魂魄이 出하고, 三才라는 天人地의 意志와 主體性이 四象이라는 表象의 獨立性으로 生成되어 무의식과 전의식 및 의식으로 仁義禮智를 통한 性命의 분화가 있게 되고, 五行이라는 상호의 關係的 造化性和 六氣라는 環境에서 七情이라는 心理를 가지고 意慮操志와 神靈魂魄이 動하며, 八卦라는 範疇와 九宮이라는 綜合性으로 十神이라는 統一性을 통해 生長收藏하게 된다.

### 참고문헌

1. 허준.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2. 최의목. 도통하는 천부경. 서울, 도서출판 신성, 1997.
3. 程士德. 素問註釋匯粹 上冊.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2.
4. 주희. 역학계몽. 서울, 예문서원, 1999.
5. 송일병 외.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997.
6. 윤창열. 하도와 낙서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원전외사학교실.
7. 장개빈. 類經圖翼. 서울, 書苑堂, 1976.
8. 소강철, 윤상철 역. 皇極經世. 서울, 대유학당, 2002.
9.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 1991.
10. 한국사상연구회. 圖說로 보는 한국 유학. 서울, 예문서원, 2000.
11. 최재목. 동아시아의 양명학. 서울, 예문서원, 2000.
12. 김은하. 國譯 類經圖翼 運氣編. 서울, 일중사, 1992.
13. 문재곤. 한의학과 유교문화의 만남. 서울, 예문서원, 1999.
14. 박재주. 주역의 생성논리와 과정철학. 서울, 청계, 1999.
15. 서유현. 바보도 되고 천재도 되는 뇌의 세계. 서울, 중앙교육연구원, 1997.
16. 김명동, 정영윤. 심리학개론. 서울, 전영사, 1997.
17. 金碩鎭. 대산주역강의 3. 서울, 한길사, 2002.
18. 정창영 옮김. 도덕경. 서울, 시공사, 2000.
19.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아함경.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출판사, 1996.
20. 이부영. 분석심리학(CG. Jung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2005.
21. 박선무, 고선운 옮김. 해마. 서울, 은행나무, 2003.
22. 申弘一. 동의수세보원주해 上. 서울, 대성의학사, 2000.